‘불굴의 희망’은 ‘참 멸망’의 어머니

(열왕기하 10:1~36)

6.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부치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르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칠십 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칠십 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르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8.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9.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10.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11.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르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불굴의 희망'은 '참 멸망'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불굴의 희망’은 ‘참 멸망’의 어머니

이 본문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두려운 말은 ‘희망을 놓치마라. / 희망을 굳세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 희망이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일 경우에는 이 말처럼 사기성이 농후한 간악한 말은 없는데 이 말은 마귀의 설교이고 웅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의사들보다 숫자적으로는 적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의 환자들을 대합니다.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돌보게 되는 일도 잦습니다. 특별히 불치병 확진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건강한 몸에 대한 불굴의 희망입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불굴의 의지로 이 세상에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상태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건강에 대해 불굴의 희망을 가지는 상황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무슨 정신병자 같은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이 정신병자의 말같이 들릴 정도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양심상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불치병이나 중한 병에 걸린 환자를 찾아가면 환자는 무조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다짜고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기적으로 고치시긴 했지만 모든 치유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서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 사건은 표적(sign)이 되기를 원해서 일으키신 일이었습니다.
아픈 몸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관심해야 될 현실임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일어났던 것인데 아무도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환자나 불치병환자에게 가서 무조건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먼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불치병은 하나님이 잠깐 졸아서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수정이 가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목사로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환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병은 하나님과의 친함이 깊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치병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올 만큼, 또한 욥의 경험이 이루어져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을 많이 가져서 병의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약5:14,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말한 이유도 병을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더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건강한 삶을 향한 불굴의 희망을 스스로 꺾어버립니다. 성도가 이렇게 마음을 꺾는 한 그 상태가 좌절로 머무르는 경우는 없습

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세상에 대한 죽음은 몸이 멀쩡한 사람이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것과 비교해서 순금과 14k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불치병에 걸렸으나 세상의 불굴의 희망에 대해 완벽한 죽음이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붙잡고 마음이 하늘로 간 환자들의 얼굴은, 마치 북유럽의 호수처럼 오염도가 제로상태로 느껴지는데 목사들이 공통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겉모습은 세수도 못하고 추레할 수밖에 없지만 표정이 그렇게 맑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져야 할 얼굴에 깊은 맑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불굴의 희망을 기어코 놓지 않고 건강한 몸을 희망하다가 죽게 되면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그저 멸망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로 참담한 숙청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가문의 자녀 칠십 명을 죽이는데 그들을 교육하거나 그들을 양육하던 사람들이 함께 목을 쳐서 예후가 있는 이스르엘로 돌아와 그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놓습니다.
또한 아하시야 왕과 수행원 42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바알 숭배를 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바알 숭배를 위한 큰 잔치를 벌인다는 광고를 한 후에 바알 신전에 모아놓고 팔십 명의 무사들을 보내어 다 쳐 죽이고 그곳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러한 오늘의 본문은 참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합 가문의 멸망을 불러들인 눈에 띄는 이유는 바알 숭배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부자가 되고 부흥과 발전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바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열망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가 이러한 열망과 욕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욕망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그 당시의 방법론이 바로 바알 숭배였던 것입니다.
요새 말하는 “5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와 같은 재산 늘리기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일곱 가지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일곱 가지 습관이 바로 바알 숭배와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알 숭배의 사상적 요체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한 희망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을 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끌어들인 바알 숭배는 끊임없이 자행되고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겠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집요불굴의 희망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희망이 얼마나 불굴의 희망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꺾으려야 꺾어질 수가 없는데 이 불굴의 희망 뒤에는 참 멸망이 주어집니다.

참 멸망이란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 이세벨의 최후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데도 화장을 짙게 했던 모양입니다. 하여간 별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보자 '이 역적 놈아!'라고 욕을 하는데 마침 탑 위에 두 내시가 있어 예후의 말대로 높은 탑에서 이세벨을 던져 죽이고 그 시체들을 개들이 먹고 머리와 손과 발만 남았습니다. 또한 아합 가문의 칠십 명의 왕자들이 참수를 당해서 머리가 광주리에 담겨서 해가 뜰 때까지 성문 어귀에 두 더미로 쌓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참 멸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죽고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죽음 자체는 공통적인 것이기에 그 자체를 참 멸망으로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사인지 타살인지의 문제이거나 그 비참함의 정도가 참 멸망의 척도는 아닙니다.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고 아합 가문의 왕자들이 참수 당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전국에서 모였다가 팔십 명의 무사에게 참살을 당한 것도 모두 참 멸망은 아닌데 우리는 멸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참하게 죽는 것이 참 멸망이라면 초대교회의 선배님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어 죽거나 화형 당했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러한 죽음이 이세벨의 죽음에 비해 덜 비참하지 않은데도 멸망이 아닌 이유는 죽는 순간에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주는 기쁨 때문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참한 죽음은 멸망이 아닌 순교입니다.
사자 밥이 되는 것이나 이세벨처럼 개밥이 되는 것이나 비참한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참 멸망은 망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망할 때에 재산 잃었으니 재산 망한 것이고 열 자녀가 죽었으니 자녀가 망한 것이고 친구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으니 친구가 망한 것이고 아내는 도망갔으니 아내가 망한 것이고 건강도 잃었으니 건강이 망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자였으니 명예가 망한 것입니다. 6중으로 망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한 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합3:17~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서 망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망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망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6중으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6중으로 망해도 유지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망할지라도 멸망이 아니고, 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도 멸망이 아니고, 자녀가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빌빌대고 있을지라도 멸망이 아니고, 은퇴하고 쫓겨나고 해고당했어도 멸망은 아니고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멸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살아있는 한 아직 참 멸망은 아닌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욥이 듣기만 하다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가문의 죽음이 참 멸망이 되는 이유는 이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6중 망함 속에서도 즐거움과 감격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을, 6중 망함 속에서도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봄으로 감격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욥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 멸망이 주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한 불굴의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칠전팔기를 설교하고 칠전팔기를 외치는 것처럼 사악하고 거짓되고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사업에 망했을 때에 사업성공에 대한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당신의 잘못은 성공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업에 성공해서 기뻐하겠다는 희망 자체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어떤 때에는 저절로 눈물이 나와서 같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쳐달라며 기도하려는 목사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병든 환자들에게 해줘야 할 말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갖기를 바라시면 당신을 꽁꽁 묶어두시면서 까지 마음을 하늘로 돌릴 것을 강요하고 계시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평생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골골하며 아팠던 사람의 하나님 사랑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대한 희망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 꺾인 좌절의 자리에 그대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겠다고 욕망하던 그 크기의 에너지로 하나님 갖기를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딸의 성공을 바라던 그 크기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는 말뚝 같은 병을 몸에 달고 살았지만 그에 대해 고후1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굴의 희망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참 멸망의 어머니가 되는데 십자가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늘만을 향하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33세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문이 잠겨 있었지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건강하다 못해 차원이 다른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겠습니까마는 어떠한 미련과 아쉬움도 갖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그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대한 불굴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철이 없고 몰라서 잠시 세상을 희망할 수는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불굴의 희망이 되는 것은 악함이고 마귀와 사탄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에 부활하신 후 멀쩡하신 몸을 가지고도 아무런 미련 없이 하늘로 훌쩍 올라가셨는데, 그 분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이 세상에 대한 불굴의 희망을 갖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은 영적으로 철이 없던 시절로 족합니다. 이제는 이세벨과 아합 가문이 당했던 참 멸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불굴의 희망을 꺾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던 희망의 에너지는 하늘을 향해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만이 답임을 알게 해 주셔서 문제가 주어질 때에 불굴의 희망으로 참 멸망의 길을 가는 대신에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